

연중 제 11 주일

제1독서 : 출애 19, 2-6

제2독서 : 로마 5, 6-11

복 음 : 마태 9, 36-10, 8

숲 정 이

이 주일의 화답송

우리는 주님
백성이여라.
기르시는
그 양떼이여라.

강론

일꾼을 찾습니다.

강명구 신부/ 장수 성당

예수님께서서는 목자없는 양과 같은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목자없는 양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물과 풀을 찾아 헤메일 것입니다. 때로는 들짐승이나 도둑들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있다면 양들은 안심하고 살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도둑과 들짐승에게서 보호하고 양들을 풍부한 물과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을 돌보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추수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무엇이든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일꾼들을 원하십니다. 일꾼은 하느님의 일을 거드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악령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어 악령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능력을 주시어 악령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는 권능을 주시어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홀로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당신 구원사업의 협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협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움추리거나 초라한다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주시고 당신 구원사업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많은 은총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시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힘차게 전합시다.

소리

역사를 바로 보자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행위를 ‘계란 세례(洗禮)’라고 말한다. 이 행위는 상대에게 ‘야유’를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벌이는 시위의 일종이다. 더 화가 나면 ‘주먹 세례’를 주기도 한다.

전직 대통령이 출국하는 공항에서 ‘페인트 세례’를 받았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아마도 외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당의 당직자가 광주의 5·18기념 묘역에 갔다가 인분 세례를 맞았다. 정치인 김두한이 국회에서 인분을 뿌렸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지만, 인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근래 처음 들어본 이야기다.

아침 신문에 이렇게 쓰였다.

“여당의 모의원 인분 세례 받다.” 두 분의 경우 모두, 역사를 바로 보지 않고 왜곡했다고 해서 시민이 세례를 준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E.H.Carr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연구)’란 과거의 새로운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지나간 과거가 역사가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 역사(연구)라고 하였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와 단절된 채로 존재하는 그런 현재는 없다.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시민들의 야유와 분노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역사 앞에 누가 감히 당당히 나설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6월이다. [태]

숲정이 산책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오 복음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다. 예수님과 첫 제자들의 정서로 보아, 이 말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버지는, 책임과 배려라는 의미에서, 가정 생활을 조직하고 가족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주는 사람이다(마태 13, 52 참조). 온 가족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삼아 아버지의 근면성과 능력, 용기와 지혜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집안의 다른 모든 가족들처럼 편하게 느끼면서 하느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적절히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가정의 집단 정서 안에 자리잡은 아버지를 보는 현상과 더불어, 엄밀한 주체간 관계를 강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고, 자식들을 인간으로 키우는 사람이며, 자녀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자녀가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느님께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곧바로 하나의 가정 환경 안에서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음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 깊숙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있음을 느낀다. 하느님께서서는 참으로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마태 6,6)이시다.

집단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정적 차원을 가리킨다. 이 말은 어떤 분화 경향을 보이는 마태오 공동체에 대

한 훈계가 될 수 있다. 어쩌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단순히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친밀하고 개인적인 가치들을 통하여 그들을 결합시켜 주는 끈에 힘입어 함께 모여 사는 것이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한눈에 보시는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지상의 체험으로 아버지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하느님께서는 그렇지만 초월하시는 하느님으로 머물러 계신다. 그러나 신적 초월성이 신적 부성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하느님께서는 부성으로 신성을 증대시키고 신성으로 부성을 증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한히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계시고, 무한하게 하느님이신 아버지께서 계신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이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늘”은 하느님 고유의 차원을 상징하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실재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 말은 또한 모든 평범성을 배제하라는 경고이다.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하느님을 지나치게 가까운 분으로 느낀다기보다는(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지상의 아버지에 대한 체험의 범주들을 하느님께 투사하여 하느님을 축소된 형태로 여겨 버릴 위험이 있다. 마태오는 우리에게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면서 인간의 수준을, 마태오 전형적인 표현으로 부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차원과 대비시켜 그러한 위험을 막아 준다.

기쁨과 은총의 대희제 2000년 대희년(1999년)까지 195일 남았습니다.

함께 가요, 우리!

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열심한 신자 가정의 자녀인 이 희왕(요셉)군이-대학 1년생- 성덕 바우만처럼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만은 부족하여 청하오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삼천동 성당 225-0396 오성기 신부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험 결과 작용후 3일이내 82%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 중 진(스토펜노)
다가동 복지성당 옆
창의 메디칼 ☎ (0652)282-1610-1

백 마 의 스프 레 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 환(마 르 코)
인 정 미(프란치스카)
☎(0652)253-2452 H·P019-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쿤 : 160,000원
· 옥, 맥반석 돌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제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죽림리조트 유희온천
당뇨,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봉 근(바오로)
국 장 호(요 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무실 272-5302 주임신부 박찬길
 보좌신부 252-0383 수녀원 272-5304 보좌신부 김형우
 F A X 271-1937 유치원 252-0384 사목회장 이철동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무실 291-0832 주임신부 한병현
 수녀원 291-0833 사목회장 이세갑
 보좌신부 254-8561 수녀원 254-1142 보좌신부 유진영
 F A X 274-1004 사목회장 장준식

◎ 주일미사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지냅니다

◎ 생활말씀: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는 사람은 살려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금주 모임: ① 성모승천, 무염시태, 성마리아, 성모성심 Cu. - 교중미사 후
 ② 성 프란치스코회 성지순례 - 20일(주일), 배티성지
- 예비신자 인도자들은 교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피 주시기 바랍니다
- 연중봉헌금(교무금) 분납에 관심을 갖고 실시합니다
- 사무원 모집: 자격 - 영세한지 3년이상, 워드 2급이상 자격소지자, 서류 - 자필이력서, 워드자격증 사본, 문의 및 접수 - 사무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월12일: 12일~20일(주일), 미사 전, 후
- 각 단체 모임 일정 변경될 경우 1주일전에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 금주 전례: 해설 - 김옥영, 독서 - 이동희, 노경자, 봉헌 - 덕진 24반
- 차주 전례: 해설 - 정영식, 독서 - 이정문, 박성배, 봉헌 - 덕진 25반
- 금주 정소: 19일(토) 후 2시, 작은 형제회, 거룩한 매괴의 여왕 Pr.
- 차주 정소: 26일(토) 후 2시, 대전회, 의덕의 거울 Pr.

- 냉담자 방문: 15일부터 화, 금
- 성가대 단합대회: 20일(주일) 공식미사 후
- 다음주일에는 성전신축 2차헌금 있습니다
- 오늘 모임: 울뜨레야, 요셉회
- 애령회 모임: 17일(목)
- 감사 헌금: M.E 모임 - 5만원
- 금주 전례: 해설 - 김옥영, 저녁 - 김미란
 독서 - 김동진, 최평식, 안춘자
 제물봉헌 - 이재갑 부부
- 차주 전례: 해설 - 강신준, 저녁 - 이미란
 독서 - 소병길, 최종길, 김미진
 제물봉헌 - 이창로 부부
- 성당 정소: 19일(토) 신비로운 장미, 파티마의 성모

□ 지난주 봉헌금: 1,960,150원 □ 교무금: 628,000원

□ 지난주 봉헌금: 690,100원 □ 교무금: 995,000원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무실 212-3231 주임신부 김진화
 보좌신부 212-3722 수녀원 212-3233 사목회장 최승호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무실 274-1004 주임신부 한기호
 보좌신부 254-8561 수녀원 254-1142 보좌신부 유진영
 F A X 274-1004 사목회장 장준식

- ◎ 건진성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건진자, 여러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좀더리설 모으기: 매월 셋째주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 ◎ 2000년 부제 서품 대상자 선발예식: 이금재(마르코)학사님
 21일(월) 전 10시 30분, 치명자산 성당
 *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오늘 모임: ① 천상 은총의 어머니 Cu. - 공식미사 후
 ② M.E 가족 모임 - 후 8시
 - 주간 모임: ① 요셉회 - 17일(목) 후 6시 30분
 ② 울뜨레야 - 18일(금) 후 7시 30분
 ③ 동성회 - 19일(토) 후 6시
 - 차주 모임: 빈센시오, 중, 고 자모회 - 공식미사 후
 - 성서 교실: 17일(목) 후 8시
 - 정소 안내: 금주 - 하늘의 문 Pr., 차주 - 정의의 거울 Pr.
 - 금주 전례: 해설 - 임명선, 독서 - 손순택, 노경배
 봉헌 - 최연호, 함명남
 - 차주 전례: 해설 - 박병익, 독서 - 유종석, 최미선
 봉헌 - 이근영, 황승희

- ◎ 성전 보수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바칩시다(1구좌 5만원): 이견창, 서기순, 김미순 5, 익명 4, 김진욱, 김동욱, 백영도, 유종근, 이근자, 백경연, 양은순, 윤충식, 이기천, 신태봉, 이정희 2, 박순배, 김정순, 송주철, 허정수, 김용진, 박공순, 임순덕, 임순희, 김차욱, 김삼례, 유효근, 전태술 각 1구좌 * 감사합니다
- 오늘 모임: 안나회, 대전회, 바오로회 - 공식미사 후
 - 사목회: 15일 후 8시, 소성당 2층 3 가정 사목방문: 19구역 - 15일 후 2시, 20구역 1반 - 16일 후 2시, 20구역 2반 - 18일 후 2시
 - 다음주 공식미사 후 본당 신부님 영명 축하식이 있습니다.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본당에서 전신자 나눔 잔치가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카마트 영수증을 모읍시다: 영수증을 모으면 0.6%를 돌려받게 됩니다(카마트 내 영수증합)
 - 대전 조기축구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조기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7. 초등부 버스운영 시간표: 서호아파트 2시→미산리 2시 10분→시영 아파트 2시 15분→대명 아파트, 쌍용 아파트 2시 20분→한양 아파트 2시 25분 8. 첫영성체 사진: 사무실에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9. 금주 본당 정소: 21구역 - 19일 전 10시 10. 금주 전례: 해설 - 박화선, 독서, 봉헌 - 20구역
 - 차주 전례: 해설 - 최용성, 독서, 봉헌 - 21구역

□ 지난주 봉헌금: 1,001,540원 □ 교무금: 1,084,000원

□ 지난주 봉헌금: 1,547,740원 □ 교무금: 1,992,000원

삼례 주임신부 291-8469 사무실 291-2018 주임신부 김순태
 보좌신부 291-2018 수녀원 291-3196 사목회장 강영만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병환
 보좌신부 252-1606 수녀원 252-9567 보좌신부 정시진
 F A X 252-7366 사목회장 김인선

- 금주 모임: ① 요셉회 - 전 9시 30분
 ② 성모회 - 후 8시
- 차주 모임: ①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 프란치스코회 - 후 2시
- 매월 셋째주는 교무금 납입 주일입니다
- 감사 헌금: 비비정 오 수산나 2만, 우남A 김정숙(아네스) 5만
 천왕성 손은숙씨 1만, 익명 3만 * 감사합니다
- 2차헌금 있습니다
- 차주 정소: 후상리
- 금주 전례: 해설특전 - 김옥화, 공식 - 윤천수
 독서특전 - 서정만, 이미자, 공식 - 최경식, 한홍순
 제물봉헌 - 이정근 부부
- 차주 전례: 해설특전 - 김세연, 공식 - 최승경
 독서특전 - 이광일, 이준순, 공식 - 박종선, 윤천수
 제물봉헌 - 서승환 부부

- ◎ 성지 순례: 배론 성지
 ◎ 성령 세미나: 28일(월)~7월 3일(토)
 * 신청서를 사무실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주 모임: ① 구세주의 모후, 능하신 동정녀 Cu. - 공식미사 후
 ② 청년연합회 - 저녁미사 후
 - 부녀회, 제대회, 자모회: 15일(화) 전 10시
 - 사목회: 18일(금) 후 8시
 - 감사 헌금: 전순희(리디아) 5만원, 이홍자(테레사) 5만원
 - 수녀원 건물 구입 헌금: 정숙아 (40만), 박경애, 류대희 (각 20만), 김재순, 손희장, 문동식 (각 10만), 첫영성체 부모 (243,500원) 계 - 36,316,500원
 - 축! 혼배: 20일(주일) 낮 12시 30분
 신랑 - 김창식(스떼파노)씨의 제 김효연(스티왕)군
 신부 - 장현씨의 장녀 장영아 양
 - 다음주 본당정소: 5구역 28반 8. 미사 안내: 천주의 성모 Pr.
 - 금주 전례: 해설 - 기노준(시메온), 독서 - 황화선, 김화중
 - 차주 전례: 해설 - 김문숙(보나), 독서 - 심연무, 소인순

□ 지난주 봉헌금: 897,410원 □ 교무금: 1,235,000원

□ 지난주 봉헌금: 1,794,460원 □ 교무금: 3,588,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2778 사무실 254-2777 주임신부 박대덕 사목회장 이진호

- 금주 모임: ① 요한회 - 13일(일) 공식미사 후
 ② 제대회 - 15일(화) 전 10시
 ③ 울뜨레야 - 15일(화) 저녁미사 후
 ④ 여성분과 월례회 - 17일(목) 전 10시
- 차주 모임: 안나회 - 20일(주일) 공식미사 후
- 7월부터 금요일 예비신자 낮시간 교리를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 6월 마지막 주까지 새 예비신자를 인도합니다
 * 7월 4일 - 입교식 예정
- 감사 헌금: 이광로(안토니오) 20만원
 비품비 - 오선행(로사) 20만원 * 감사합니다
-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공아파트 - 김동림(아네스)
- 각 구역에서는 전입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비신자 인도와 쉬는 자 권면에 최선을 다 합니다
- 안젤라회 봉사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주일은 본당 성소후원회 회비 및 회원가임 신청을 받겠습니다
 :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축! 결혼: 낮 12시 30분, 신랑 - 박이병, 신부 - 문정숙(세실리아)
- 금주 전례: 해설 - 이창복(안토니오)
- 차주 전례: 해설 - 현창호(바오로)
- 금주 정소: 4구역(신일A, 101, 103동) 토요일 10시

이주님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추수 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실천사항 - 본당에 수녀님의 파견을 청하는 지향으로 주모경 한번씩 바치기

□ 지난주 봉헌금: 1,237,740원 □ 교무금: 75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237,740원 □ 교무금: 750,000원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냅니다.